

Erikson의 性格發達理論의 教育的 意味

高 明 奎*

目 次

- | | |
|-------------|----------------|
| I. 序 論 | Ⅲ. 教育實踐을 위한 示唆 |
| Ⅱ. 發達理論의 特徵 | V. 結 論 |
| Ⅲ. 發達段階別 特徵 | |

I. 序 論

Erikson의 性格發達理論은 Freud의 精神分析理論에 基礎를 두고 있다. 後者の 理論이 磐石의 役割을 한 것이라면, 前者의 理論은 그 위에 보다 새롭고 精巧한 집을 지은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前者 理論은 後者 理論보다 여러 面에서 差異點이 있다. 우선 兒童의 自我가 形成되는 心理歷史的(psychohistorical) 環境을 強調했고, 人間이 여러 가지 重要한 人生問題를 어떻게 克服해 가며, 初期問題를 不適切하게 處理하면 이것이 어떻게 成長後의 問題를 處理하는 데 어려움을 갖게 하는지에 대한 知識을 넓혔고, 生活에서 오는 精神社會的 危險을 이겨낼 수 있는 人間의 適應的이고 創造的인 能力에 關心을 가졌고, 그리고 휴머니스트에 同調하여 人間은 天性的으로 善하다는 見解를 披歷했던 點은 그 몇 가지에 不過하다.

이러한 人間의 發達現象에 대한 觀點의 差異는 自然 發達現象에 대한 說明을 달리하게 됨은 勿論, 또 그것 때문에 學習者들의 調和的 發達을 促進하기 위한 學習指導와 生活指導를 效果的으로 運營하기 위한 教育活動이 差異있게 展開될 수 있다.

Erikson의 發達理論은 社會的 要因들이 여러 發達段階를 통하여 人間發達에 어떻게 影響을 미

* 師範大學 教授

치는가를 分析·整理한 內容이다. 따라서 逆으로 그 社會的 要因을 適切히 調節하면 人間의 健全한 成長發達을 助成·促進시킬 수 있다는 教育的 示唆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곧 Erikson의 發達理論에 接近하게 된 커다란 動機가 된다.

이런 觀點에서 本稿에서는 近年에 와서 크게 關心을 끌고 있는 Erik H. Erikson의 心理社會的 發達理論을 中心으로 먼저 그 發達理論의 特徵을 概觀하고, 社會的 要因의 影響에 의한 各 段階別 發達特徵을 分析·檢討한 後, 特히 人生의 어느 段階보다 潛在的 發達可能性(potentiality)이 豊富한 學令前期와 初·中等學校時期에 特別한 意味를 갖는 社會關係의 調整을 통해 兒童·學生들의 바람직한 成長發達을 圖謀할 수 있는 教育實踐的 指導方案을 提示하는 데에 研究의 目的이 있다.

II. 發達理論의 特徵

Erikson은 Freud와 마찬가지로 精神分析學派에 屬한 學者로서, Freud의 理論을 基礎로 하여 自身の 理論을 發展시켰다.

Freud는 Libido의 力動과 變遷過程에 초점을 맞추어 發達段階를 區分했지만, Erikson은 人間の 心理的 發達이 여러 段階에서 樹立되는 社會的인 關係에 초점을 두어 發達段階를 說明했다. 그래서 前者의 理論을 心理性的 段階理論(psychosexual stage theory)이라고 한다면, 後者理論은 心理社會的 段階理論(psychosocial stage theory)¹⁾이라 부른다. 또한 Erikson은 自我心理學者中的 한 사람으로서 이 分野의 心理學者와 같이 自我(ego)의 發達과 機能에 큰 關心을 기울이고, Freud가 主張한 原本能(ld)과 超自我(superego)에는 거의 關心을 갖지 않았다. 허나, Erikson의 理論은 生物學的 혹은 社會的 要因을 결코 無視한 것은 아니다. 어떤 心理學的 現象이라도 반드시 生物學的·行動的·經驗的·社會的 要因의 相互作用으로 理解되어야 한다고 強調했다.

이밖의 Erikson의 理論의 特徵은 다음과 같다.²⁾ 첫째 人間の 全 生涯를 통하여 發達變化를 強調한 點, 둘째 病的인 것이 아닌 正常 혹은 健康한 것에 초점을 둔 點, 셋째 特히 正體感 確立의 重要性을 強調한 點, 넷째 性格構造를 說明함에 있어서 臨床的 洞察力을 文化的·歷史的 要因과 結付하려 한 努力 등이다. 그러나 그 中에서도 “人間發達の 8段階(Eight Ages of Man)”에 대한 論議는 性格理論에 대한 Erikson의 가장 獨創的이고 큰 貢獻이라 아니할 수 없다.

III. 發達段階別 特徵

앞에서는 Erikson의 發達理論의 特徵을 Freud의 理論과 對比시켜 檢討했지만, 여기에서는 各 段階를 特徵짓는 共通點과 더불어 段階別에 따른 發達の 特性을 考察하고자 한다.

1) Ernest R. Hilgard and Others: *Introduction to Psychology*, 7th ed.,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1979, p.95.

2) L. A. 켈리와 D. J. 지글러, 「性格心理學」(*Personality Theories: Basic assumptions, research and applications*), 李勳求 譯, 서울, 法文社, 1984, p.141.

가. 各 段階의 共通點

Erikson이 提示하고 있는 人生周期의 8段階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共通點을 發見할 수 있다.³⁾

(1) 各 段階는 모두 “發達の 危機(developmental crisis)”에 直面하며, 여기에는 各 危機의인 時期(臨界期, critical period)가 있다.

(2) 各 段階의 危機는 모두 對立(versus)되는 性格特性에 의해 表現되고 있다(例컨대, 乳兒期는 “信賴 對 不信”으로 提示된다).

(3) 各 段階에 있어서 危機의 解決은 그 段階의 危機를 나타내는 相互 對立된 特性의 永續的인 均衡을 維持하는 것에 의해 行해진다(例컨대, 對立되는 特性 가운데 肯定的이고 바람직한 側面만을 強調하고, 다른 否定的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側面을 排除해서는 發達에 重大한 障礙를 招來한다는 것이다).

(4) 各 段階는 各己 達成해야 할 發達課業을 갖고 있으며, 그 達成은 다음 段階에 “障礙되는 것이 없는 全體的 發達로서 보다 좋은 展望을 가지면서” 危機에 直面하는 것을 意味한다.

(5) 사람은 모두 各 段階의 特徵的인 課業에 進展하도록 動機誘發되어 있다. 왜냐하면 이들 課業은 社會構造에 의해 “傳統的인 方式”으로 그 人間을 위해 準備되어 있는 選擇과 挑戰으로부터 成立되어 있고, 어떤 段階의 課業을 達成할 수 없으면, 다음 段階의 課業으로도 進展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萬一 失敗한다면 反對의 現象이 일어나서 將來의 危機가 크게 高調된다고 보고 있다.

나. 各 段階의 特徵

前述한 대로 Erikson理論의 特性은 各 段階에서 人間이 겪어야만 하고 겪을 수 밖에 없는 葛藤 내지는 危機를 서로 對立되는 兩極(polarity) 概念으로 說明한다는 點이다. 즉, 各 段階마다 어떤 特定 課業을 設定하고 그것의 達成與否에 따라 發達の 正常的·非正常的인 側面을 對比시켜 說明하고 있다. 또 이 特定段階에서 가장 強하게 發達하는 基本的 態度는 그때 그 個人的 對人關係의 體驗의 質에 依存하며, 그 體驗은 나중의 課題解決에 影響을 끼친다는 것이다.

이같이 各 段階에서 各己 特定の 危機가 支配的인긴 하지만, 發達は 連續的인 過程이라고 보는 Erikson의 立場에서 段階別로 그 發達の 特徵을 살펴보기로 한다.

1. 乳兒期：基本信賴感 對 不信感

心理社會段階의 첫 段階는 Freud의 口腔期에 該當하는 時期로서, 出生時부터 1才까지를 가리킨다. Erikson에 의하면 一般的으로 信賴感(trust)이란 健康한 性格의 礎石이며, “自信感(confidence)”과 같은 特性이라 할 수 있다. 이런 基本的인 “內的 確信感(inner certainty)”을 가진 乳兒는 社會的 環境을 安全하고 安定된 場所로 보고, 人間을 養育者로 그리고 信賴할 수 있는

3) 遠藤辰雄 編, 「アイデンティティの心理學」 日本, 京都, ナカニシヤ出版, 1981, pp.16~17.

存在로 본다. 初期의 乳兒期經驗으로 부터 얻을 수 있는 이러한 信賴의 量은 母親이 주는 飲食의 絶對量이나 表現된 愛情量이 아니라, 母親과의 關係의 質이라고 Erikson은 強調한다.⁴⁾

그러나 그와 같은 適切하고 一貫性 있는 保育과 指導가 否足할 때는 乳兒에게는 基本的인 不信과 疎外感 및 不安한 態度가 이루어진다.

Erikson은 이 時期를 人生의 初期段階에서 가장 重要的 時期로 보았으며, 그 理由는 이 時期에 形成되는 信賴感은 生의 後期에 맺게 되는 모든 社會關係에서의 成功的인 適應과 密接한 關聯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注目할 點은 Erikson이 信賴感만을 強調하고 不信感의 效用을 無視한 것이 아니라 點이다. 人間이 참된 成長을 위해서는 어느 程度 不信感의 經驗도 必要하다고 主張한다. 그러나 成長過程에서 不信感보다도 基本的 信賴感을 많이 經驗해야 한다는 것이 Erikson의 持論이다.

2. 幼兒期：自律性 對 羞恥心과 懷疑感

이 段階은 Ered의 肛門期에 相應하며, 1才半부터 4才頃까지를 말한다. 이 段階의 總括的 意味는 筋肉系의 成熟과 그 結果 얻어지는 “잡아두는 것”과 “내버려 두는 것”과의 激烈한 葛藤에 부딪히는 無數한 行動의 패턴을 協助시키는 能力과 또는 아직 顯著하게 依存的인 어린이가 自身의 自律的인 意志를 갖기 始作하는 것에 있다.⁵⁾

이렇게 幼兒는 서고, 걷고, 뛰고, 大小便을 가누고, 손가락질, 옷입기, 洗手 등을 하게 됨으로써 癖 自律的 存在가 되는 셈이다. 이제까지의 完全 依存狀態에서 벗어나 相當히 獨立의이 되면서 發生되는 特徵은 多分히 反抗의이고 固執이 세며, 言語에서도 “나” “내것” “안 해”란 말을 씀으로써 自己主張的인 表現을 한다. 그래서, Bühler는 이 時期를 第一反抗期라고 불렀다.⁶⁾

그러나 幼兒가 自身의 意志대로 하려고 하게 되면, 社會는 父母를 통하여 幼兒로 하여금 社會的으로 適合한 行動을 하도록 訓練시키게 된다. 例컨대, 用便訓練을 통하여 때와 場所를 가릴 줄 알도록 하게 한다. 이러한 過程에서 어린이가 社會의 期待나 壓力을 알게 된다. 이 段階의 肯定的인 結果는 自尊感情(self-esteem)·自己統制·自己確信·自身의 將來에 대한 意志등이다. 萬一 이때 用便訓練·걷기·뛰기 같은 身體의 統制나 自助技術이 充分히 發達하지 못하거나, 父母가 幼兒의 失敗에 대해서 지나치게 規制하는 態度로 對應하거나 하면, 幼兒에게는 羞恥心과 疑惑이 강한 感情이 發達할 것이다.

自律性的인 段階는 最初의 離脫을 뜻하며, 이는 나중의 青年期의 離脫(心理的 離乳)의 試圖에도 影響을 끼치게 된다.⁷⁾ Erikson은 信賴의 發達は 自律性的인 成長에 必要하다고 생각한다. 萬一 이 段階가 他者와 自身에 대한 不信으로 始作될 것 같으면, 幼兒의 前途는 多難하게 될 것이다.

4) 上揭書, p. 17.

5) 上揭書, p. 18.

6) 曹恩淑, 「教育心理學」, 서울, 進明文化社, 1974, pp. 71~72.

7) J. B. 로터와 D. J. 호크레이크, 「性格(Personality)」, 託摩式俊外譯, 日本, 東京, 新曜社, 1984, p. 53.

3. 兒童期：主導性 對 罪惡感

Freud의 男根期에 該當되며, 4~6才 무렵까지이다. 많은 身體的인 活動을 할 수 있는 能力과 言語驅使能力이 생기면서 兒童은 主導性의 段階로 들어간다. 主導性(initiative)이란 이와 같은 能力을 使用하여 自律的으로(前段階에서 發達되었음) 課題를 企劃하고 解決하는 性質을 말한다. 萬一 兒童에게 探究하고 實驗할 수 있는 自由를 賦與해 주고, 父母가 兒童의 質問에 對答해 주는 時間을 가진다면, 主導性이 북돋아질 것이다. 이 段階의 危機의 肯定的 解決은 環境에 대한 積極的인 認知的 探索이 여러 가지 情報를 가져다 주는 즐거운 經驗이라고 하는 感覺의 發達과 關係가 있는 것이다.⁸⁾ 이 段階에서 兒童은 Oedipus Complex를 거친 後 自己에게 힘과 美의 象徴이 되는 父母와 같이 되고자 하는 데서 同一視現象이 생긴다. 이러한 同一視機制를 통해서 男性이나 女性으로서의 役割을 學習하게 되고, 父母의 價値를 內面化함으로써 超自我가 發達하게도 된다.⁹⁾

그러나 萬一 兒童의 活動을 制限하고 好奇心을 抹殺시키고 質問에 대한 對答이 一貫性이 없고 귀찮아한다는가 하면 兒童들은 自發性和 好奇心을 잃게 되고, 오히려 兒童 自身の 行動에 대해 罪惡感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經驗을 자주 한 兒童은 大體的으로 새로운 經驗을 두려워하고, 繼續 成人에게 依存하려 하며, 內向的인 兒童으로 자라기 쉽다.

이처럼 이 段階에서도 如前히 葛藤이 存在한다. 즉 自律的으로 行動을 主導하고 싶지만 어른들의 制止가 있고 그 制止를 벗어나려하니 罪惡感이 일어나서, 結局 主導性和 罪惡感사이에서 葛藤이 일어난다. 이 두가지 相衝되는 感情의 軋轢은, 곧 다음 段階의 發達을 위한 力動的 힘 이 된다.

4. 學童期：勤勉性 對 劣等感

이 段階는 6才부터 11才까지를 말하며, Freud와는 달리 Erikson은 潛伏期의 重要性을 強調한다. 이 段階는 激烈한 Id는 休止中인 것이 普通이지만, 社會的 發達에 있어서는 極히 決定的인 段階이다.¹⁰⁾ 이 時期는 3R's등의 認知的 技術을 獲得하기 위해서 學校에 入學하는 時期이며, piaget¹¹⁾의 發達理論에 따르면 具體的 操作期에 該當하는 時期이므로, 心理性的 發達面에서는 潛伏期로서 比較的 平穩한 狀態라고 하지만, 認知的 發達面에서 볼 것 같으면 決코 消極的인 작용한 時期가 아니다. 즉, 이 時期의 兒童들은 周圍環境에 대한 探索과 아울러 知的 探索이 活潑

8) 朴雅晴, 「아이덴티티의 探索」, 서울, 正民社, 1984, p. 79.

9) Calvin S. Hall, *A primer of Freudian Psychology*,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1954, pp. 109~110.

10) 託摩式俊外譯, 前掲書, p. 54.

鄭寅錫, 「現代教育心理學」, 서울, 載東文化社, 1981, p. 72.

11) Ernest R. Hilgard and Others: *op.cit.*, p. 73.

한 매우 活動的인 時期이다.

勤勉感(sense of industry)은 自身에게 닥쳐오는 外部의 挑戰을 스스로의 힘으로 克服할 수 있다는 생각과 態度를 뜻하는 것으로, 成功의 經驗을 통해서 兒童의 成就動機나 競爭心 有能感(feelings of competence) 등이 強化되는 데 따라 發達하게 된다. 그 結果로 勤勉感을 形成하게 된 兒童은 自肯心을 갖게 되며, 外部世界에 대해서도 自信感을 갖게 되어 能動的이고 活潑한 性格을 갖게 되며, 社會에서 潛在的인 生産의 人間으로서의 identity의 感情을 發達시킨다.

그러나 成功의 經驗보다 失敗의 經驗을 더 많이 한 兒童은 自身은 挑戰에 對處할 能力이 없다는 생각에서 劣等感이 發達하게 되어, 外部世界에 대해 스스로 萎縮되고 否定的인 性格을 形成하기 쉽다. 이러한 劣等感은 前段階에서 成功의 葛藤을 克服하지 못했을 때나, 學校나 社會가 兒童에 대한 偏見的 態度를 取할 때 發達되기 쉽다.

5. 青年期：自我正體感 對 役割混同

이 段階는 대개 12才부터 身體成長이 거의 끝나는 20才前까지를 말한다.

青年期에는 急激한 身體的 變化와 또한 새로운 社會的 壓力과 要求에 어떻게 對應해 나가야 할지 몰라서 以前段階까지 懷疑없이 받아들였던 自己存在에 대해 새로운 疑問과 探索이 始作된다.

Erikson은 青年期の 中心課題를 自我正體感(ego identity)의 確立이라고 했다. 즉 “나란 어떤 사람인가?” 또는 “나는 將次 어디로 갈 것인가?” 라는 質問에 대한 解答을 얻는 것이, 正體를 찾는 일이다. 그래서 自我正體感은 社會와의 關聯속에서의 特定한 役割·價值觀의 達成을 통해서 獲得되는 自己價値에 대한 確信이기 때문에, 그것은 確證된 自己評價 즉 自尊感情(self-esteem)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¹²⁾

그러면, 어째서 正體感의 確立은 青年期에 와서 深刻한 問題로 擡頭되는가. Erikson에 의하면 “青年期에 外顯的인 正體感危機(identity crisis)가 오지만, 正體感의 形成은 青年期에 始作하는 것도 끝나는 것도 아니다. 意識되지 않은 채 一生동안 繼續되는 發達”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自我正體感의 形成 및 確立의 必要가 切迫하게 擡頭되는 데는 두 가지 理由를 찾을 수 있다.¹³⁾ 첫째 性的 成熟에서 오는 內的 衝動的 質的 變革이다. 思春期과 青年期가 되면 身體的 發達이 急激하고 性的 成熟이 새로운 局面에 접어들므로 이러한 性的 成熟이 內的 衝動的 質的 變革을 招來하며, 그 結果로 原本能·自我·超自我의 均衡이 깨어지면서 새로운 心理學的 力動을 調節·統合하지 않으면 안되는 狀況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自我統合의 必要로서 自我正體感의 確立이 要請된다. 둘째 同一視의 有用性的 喪失이다. 青年期에 이르면 지금까지의 同一視(identification)들의 有用성이 制限되는 데서 이 問題가 두드러지게 된다. 왜냐하면 正體感 形成에 있어 同一視 機制가 重要한 役割을 하지만, 同一視들의 單純한 集積만으로서서는 完全히

12) 遠藤辰雄編, 前掲書, p. 20.

13) 徐鳳延·柳岸津, 「人間發達」, 서울, 韓國放送通信大學出版部, 1985, pp. 202~203.

機能할 수 있는 性格이 이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青年期가 되면 兒童期의 여러 가지 同一視 가운데서 選擇의으로 拒否·抑制하기도 하고, 이 段階에서 새로 獲得한 同一視가 서로 同化되기도 하며, 또 새로운 짜임새(configuration) 속으로 짜여들어감으로써 正體感이 새로이 結晶되어 가는 것이다. 이같은 理由로 해서 眞正한 正體感의 形成은 同一視의 有用性이 없어지는 데서부터 始作된다고 볼 수 있다.

青年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以前의 同一視들과 現在의 同一視들을 統一된 體制 속으로 結合시키지 않으면, 將次 方向을 잃은 배가 되어 버린다. 이렇게 되면 青年들은 正體感 擴散 내지는 昏迷(identity diffusion or confusion)에 빠져들어가게 된다. 특히 過去와는 달리 同一視할 모델과 社會的 役割이 多樣한 現代社會에서는 正體感을 確立하는 것은 靑少年들에게 어렵고 오래 걸리는 課業이다. 그래서 어떤 青年들은 正體感昏迷 속에서 定着할 바를 못 찾고, 그 結果로 견디기 어려운 無實體感(non-entity)에서 벗어나려는 單純한 希望에서 否定的 正體感(negative identity)을 形成해 버리고 마는 境遇가 있다. 이 時期에 나타나는 靑少年非行은 肯定的 正體感을 形成시키려는 試圖가 不幸히도 빗나가 버린 境遇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正體感和 役割混同은 어떤 意味에서는 多樣하고 復雜한 社會에 適應하는 技術을 習得하기 위해서나, 社會나 文化의 發達을 위해서나 必要하고도 不可缺한 것이다. 正體感 閉鎖(identity foreclosure)¹⁴⁾라든가, 限定된 同一視의 對象이 있는 곳에서는 向上과 發展·創造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많은 專門家들은 靑少年期는 여러 가지 理念과 關心을 探索해 보는 役割實驗期間(period of role experimentation)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¹⁵⁾ 靑少年들은 오늘날의 入試競爭과 出世에 대한 壓力 때문에 이것을 探索할 機會를 剝奪당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實驗期間은 어느 文化에서나 靑少年들에게 不文律로서 許容되어 있을 만큼 心理社會的 猶豫期間(Psychosocial moratorium)¹⁶⁾으로 設定해 놓고 있다. 이 猶豫期間에 靑少年들은 多種多樣한 役割과 行動樣式을 經驗함으로써 役割昏迷와 彷徨이란 陣痛을 거쳐서 비로소 眞正한 自身을 發見하고 自己의 人生觀을 樹立하는 自己正體探索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自身の 正體를 찾으므로써 將來에 대한 計劃과 進路를 決定하고 그에 대한 準備를 하여 責任있는 社會人으로서 成人의 時期에 발을 들여 놓게 되는 것이다.

Erikson은 이 時期를 基本信賴感이 形成되는 時期인 第1段階에 못지 않을 만큼 重要한 時期라고 主張하고 있다. 그렇다는 것은 이 時期의 自我正體感의 獲得은, 基本信賴感이 兒童期의 새로운 經驗世界에 突入할 바탕을 마련해 주는 것처럼, 앞으로의 成人生活의 挑戰 즉 配偶者 選擇이나 職業選擇 및 社會活動에 對應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주기 때문이다.

14) 朴雅晴, 「現代의 教育心理學」, 大邱, 學文社, 1984, pp.136~137.

15) Ernest R. Hilgard and Others; *op.cit.* pp.92~93.

16) 鄭良殷, 「心理學通論」, 全訂版, 서울, 法文社, 1982, pp.212~213.
託摩式俊外譯, 前掲書, pp.54~55.

6. 成人初期：親密性 對 孤獨

이 時期는 青年期後半부터 成人初期로서 20才부터 40才에 이른다. 親密性(intimacy)은 他人에 대해 配慮하고 그들과 서로 함께 經驗을 나누는 것을 뜻한다.¹⁷⁾ Freud와 마찬가지로 Erikson도 人間이 정말로 他人과 더불어 性的 親密感은 勿論 社會的 親密感을 갖게 되는 것은 바로 이 時期라고 主張한다. 青年期에는 主로 關心의 對象이 自己 自身이었으나, 成年初期에 이르게 되면 職業을 選擇해야 하고, 配偶者를 찾아야 한다.

그러나 Erikson에 의하면 青年期에 肯定的인 正體感을 確立한 사람만이 眞正한 親密性을 이룰 수 있다고 한다. 즉, 主體性도 있고 性發達이 完全하면 한 異성과 깊은 親密性을 나눔으로써 性뿐만 아니라 일과 餘暇善用に 있어서도 서로 協力的으로 生活할 수 있으며, 家庭을 營爲할 수 있다. 말하자면, 이 時期는 配偶者인 相對方속에서 共有된 正體感(shared identity)을 찾는다고 말할 수 있다. 自己自身에 自信이 있을수록 더욱 더 友情·사랑·統率力·싸움·靈感의 形式으로 親近關係를 追求하려고 한다.¹⁸⁾

한편, 正體感을 確立하지 못한 者는 自己自身에 대한 自信感의 缺如로 인해 配偶者는 勿論 他人과의 關係에서도 親密性을 形成하지 못하고, 孤立하여 自己 自身에게만 沒頭하게 된다. 自己 陶醉된 사람들은 單純히 公式的이고 皮相的인 人間關係를 追求하며, 親密感의 要求를 威脅으로 느끼므로 眞正한 參與로부터 自身을 隔離시킨다.¹⁹⁾

7. 中年期：生産性 對 沈滯性

대충 40才에서 60才에 이르는 中年 成人期를 말한다. 生産性段階는 무엇을 生産하느냐(子孫·生產品·思想 등)에 대한 關心과 그리고 다음 世代를 위한 指針(guidelines)을 確立하는 것으로 特徵 지워진다.²⁰⁾ 一旦 兩者間的 親密性이 確立되고 나면, 그들의 關心은 두 사람만의 關係를 넘어서 그 밖의 사람으로 擴大되기 始作한다. 家庭의으로는 子女를 낳아 키우고 教育하게 되며, 社會的으로는 다음 世代를 養成하는 데에 關心과 努力을 기울이게 된다. 그 위에 이런 生産性은 職業的인 成就나 學問的·藝術的 業績을 통해서도 發揮되며, 自身の 2世가 없는 境遇에는 다음 世代들을 위한 社會的인 奉仕 등을 통해서도 生産性을 發達시키게 된다. 그래서 이 時期에서 맛보는 滿足感은 自身の 子女들이 成人이 되게 도와주고, 도움을 必要로 하는 他人을 돌보아 주고, 自身이 社會에 貢獻하고 있다는 自負心을 느끼는 데에서 비롯된다. 生産的인 期間이 뜻하듯이 40代의 男子는 普通 그의 一生을 통해서 最高頂點에 오르게 되고, 女子는 家庭의 養育責任이 적게 되어 經歷이나 奉仕活動에 時間을 割愛할 수 있게 됨으로, 그들의 힘과 責任으로 보아 現 社會

17) Ernest S. Hilgard and Others, *op.cit.*, p.96.

18) 金聖泰, 「成人人格論」, 서울, 高麗大學校出版部, 1976, p.6.

19) 李勳求, 前掲書, pp.163-164.

20) Calvin s. Hall and Gardner Lindzey, *Theories of Personality*. 3rd. Edition, New York, John wiley & sons, 1978, p.98.

를 이끌어 가는 集團이 바로 이 年令集團이라 할 수 있다.

한편, 生産性과는 對照的으로 成人期의 여러 要求에 副應할 수 없으므로 因해서 停滯가 생긴다. 停滯(stagnation)란 心理的인 成長이 缺如되고 있음을 意味한다.²¹⁾ 自己의 에너지나 技能을 “自己의 擴大(self-aggrandizement)”나 個人的 滿足이란 目的만을 위해서 消費하고 있는 成人은 自己欲求以外的 것에 또는 他人을 돌보는 것에 대하여 滿足感을 얻을 수 없다. 家庭의 管理·養育·職業의 管理를 成功的으로 遂行할 수 없는 成人은 中年期가 끝날 무렵이 되어 心理的 停滯感(psychological sense of stagnation)을 느끼게 될 것이다.

中年이 접어들어도 사람은 繼續 生産的이어야 한다는 Erikson의 理論에 의하면 停滯性은 不毛性을 뜻하며, 社會的 成長을 拋棄한 것과 다름없는 悲劇이다.²²⁾

8. 老年期：統整性 對 絶望感

人生の 마지막 段階인 65才以後의 年令에 該當하는 老年期에는 體力과 健康의 惡化에 대한 適應, 退職과 收入의 減少, 親한 親善나 配偶者의 죽음 등으로 因하여 人生에 대한 無力感을 느끼게 된다. Erikson의 主張처럼 이 時期의 成敗는 이 時期에 다가오는 身體的·社會的 退步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달려 있다.

이 段階의 特徵은 새로운 心理社會的 危機의 出現보다는 오히려 自我發達의 지금까지의 全 段階의 綜合·統合 및 評價로 나타난다.²³⁾ 老年期는 反省의 時期로서 自身의 生涯가 價値있는 삶이었는지를 吟味해 보는 過程에서 自身의 生이 無意味한 것이었다고 느끼게 되면 絶望에 빠지게 된다. 後悔로 人生을 되돌아보고 自己人生을 一聯의 機會를 못 잡고 失敗한 것이라고 본다면, 末年은 失望의 歲月이 될 것이다. 죽음이 두렵고 時間이 짧고 새 出發의 餘裕가 없어 自己에의 嫌惡만 생기며, 그 嫌惡는 人間이나 社會에의 不快感으로 間接的으로 表出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絶望속에서도 自身은 그때 그럴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면서 自己 나름대로 人生の 意味를 찾고 보람을 느끼게 되면, 人生에 대한 참다운 智慧를 獲得하게 된다. 이러한 智慧를 통하여 앞의 7段階의 所産을 거두어 들일 수 있게 되며, 드디어는 보다 더 次元 높은 人生哲學으로 統整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Erikson理論에 있어서 統合(integrity)이란 自己의 人生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죽음에 대하여 크나큰 恐怖心을 갖지 않고 直面할 수 있는 能力을 意味한다.²⁴⁾ 그래서 統合의 感覺(또는 狀態)을 確立한 사람은 自己의 過去에 대하여 實存的인 觀點에서 眺望할 수 있고, 自身의 存在가 後孫이나 創造的 業績을 통해서 繼續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을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된다.

21) 朴雅晴, “아이덴티티의 探索”, 前揭書, p. 84.

22) 朱貞一, 「兒童發達學」, 增訂版, 서울, 敎文社, 1980, pp. 247~248.

23) 李勳求, 前揭書, pp. 165~166.

24) 朴雅晴, 前揭書, p. 85.

IV. 教育實踐을 위한 示唆

여태까지의 論議를 통해서 Erikson의 人性發達段階는 여러 年令水準에서 特別한 意味를 갖는 對人關係와 自己自身에 대한 知覺에 關心을 갖게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特別 發達の 潛在的可能性이 豊富한 學令 前期에서 靑少年까지의 兒童·靑年들이 對人關係의 調整을 통해서 健全한 成長發達을 꾀할 수 있는 教育實踐을 위한 示唆를 몇 가지 提示해 보기로 한다.

1. 學令前期와 幼稚園時期

3才 兒童은 自律性 對 羞恥 및 疑惑의 段階이고, 4~5才는 主導性 對 罪惡感 段階이다. 自律性은 兒童에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許容될 때 發達하는 反面, 羞恥는 他人에 의해서 自身の 弱點이 드러났다고 느낄 때 經驗하는 것이다. 疑惑은 너무 많은 것을 할려고 하지만 兒童에게 環境에 對處하는 能力이 있다는 自信感이 缺乏될 때 나타난다. 故로 自律性的 發達을 獎勵하기 위하여 可能한 限 自由로운 놀이와 經驗을 많이 하게 하는 한편, 兒童의 弱點이 露出되거나 能力을 疑心하게 될 可能性을 줄여줄 수 있는 指導를 해야 할 것이다. 例컨대 兒童이 自己能力 밖의 일을 하여 挫折할 徵兆가 보이면, 兒童이 해낼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일을 하게 하여 勇氣를 북돋우어 주어야 한다.

幼稚園兒童들은 自律性보다는 主導性에 보다 많은 關心을 보인다. Erikson에 의하면 “主導性이란 自律性 위에다가, 活動하고 움직이기 위해 어떤 課題를 遂行하고 計劃하고 處理하는 能力을 덧붙인 것이다.” 따라서 이 段階의 兒童들에게는 自己主導的인 活動을 最大限으로 許容해야 하며, 다만 他人의 權利를 侵害할 때만 干涉이 必要하다. 또한 自律的으로 活動하여 成就感을 經驗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課題를 計劃하고 遂行하도록 도와 주는 것이 有益하다. 罪惡感을 極少化시키기 위해서는 公席에서 他人과 能力을 比較하는 것을 避하는 일이며, 嫉妬心의 兒童에게 남에게 關心을 두기 보다 自身の 成就에 努力하도록 激勵하는 것도 한 가지 方法이다. 兒童의 好奇心과 質問에 適宜 對答해 주는 것도 罪惡感을 防止하는 그 한가지 方法이다.

2. 國民學校時期

國民學校期間은 勤勉性 對 劣等感의 段階에 該當된다. 이런 勤勉感과 劣等感의 發達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要因이 複合的으로 作用한다.

첫째 兒童에 대한 父母의 態度가 重要하다. 兒童이 어떤 일을 熱心히 하고 있을 때 父母가 忍耐와 讚辭로써 추겨주면 漸次 勤勉感을 內面化해 가지만, 兒童의 失手를 受容하지 못하고 干涉을 하든가 일을 中斷시키든가 하면 劣等感(sense of inferiority)을 갖게 된다.

둘째 兒童에 대한 教師의 教育的 態度가 重要하다. 먼저 兒童이 級友들과의 比較를 強要當하

거나 他人과 公公然하게 比較된다면 優秀한 少數의 兒童은 成功感을 맛볼지 모르지만, 大多數의 兒童은 挫折할 것이다. 이런 競爭의인 狀況下에서는 大部分의 兒童들이 學校生活의 劈頭부터 不適切感과 劣等感을 經驗하게 되면, 繼續되는 學校生活에서 別로 成就를 期待할 수 없을 것이다. 이 段階의 兒童들은 典型的으로 勤勉性을 나타내는 데 熱心이기 때문에, “꾸준한 關心과 끈기있는 부지런함으로 作業을 完成하는 즐거움”을 經驗할 수 있는 機會와 激勵가 주어져야 한다. 이것은 細分化된 目標로 陳述된 多様な 課題들을 마련해 줌으로써 可能해질 수 있는 한편, 兒童은 課題들을 完遂한 때를 알 수 있게도 된다. 이러한 課題들은 잘 排列되어 있어서 自己自身の 速度에 따라 着實히 일을 進行시켜 나가게 하며, 困難에 直面했을 때는 바로 矯正指導를 해 줘야 할 것이다.

다음, 教師가 兒童에게 주는 役割(role)도 勤勉感 및 劣等感에 커다란 影響을 끼친다. sociometry에 의한 交友關係의 實態는 固定的인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모든 兒童의 潛在能力의 伸張이란 教育的 觀點에서 될 수 있는 限 多様な 役割을 分擔케 하여, 그 役割의 完遂를 통해서 成功感和 喜悅를 體驗할 수 있도록 指導하지 않으면 안된다.²⁵⁾ 이것이 바로 役割을 통한 바람직한 性格特性의 形成에 貢獻하는 길이기도 하다.

3. 中等學校時期

中·高等學校 學生들은 正體感 對 役割昏迷의 發達段階에 該當된다. 이 段階는 以前の 段階들보다 더 複雜하고 어렵기 때문에, 이 段階의 教育的인 含意를 理解하기 위해서는 靑少年期에 대한 Erikson의 見解를 좀 더 살필 必要가 있다.

正體感의 意味는 Erikson에 의하면 心理社會的인 安定感으로써만 經驗되는 것이다.²⁶⁾ 여기에는 具體的인 세 가지 意味, 즉 身體的인 安定感和 自身이 가야 할 目標과 自身の 現在의 位置와 狀況을 알고 있다는 것 및 自身이 尊敬하고 價値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부터 自身이 豫想한 만큼 認定을 받고 있다는 것을 內的으로 確信하고 있다는 것이 內包되어 있다. 따라서 正體感의 指導는 이 세 가지 面에서 具體化되어야 할 것이다.

指導方案에 接近하기에 앞서, 靑少年期는, 兒童으로부터 成人으로 移行하고 또 社會的·歷史的 變化에 대한 感受性 때문에 正體感 擴散(identity diffusion)·正體感 混迷(identity confusion)·正體感 危機(identity crisis)·否定的 正體感(negative identity)등 많은 問題의 發生으로 正體感 形成의 過程에서 甚한 動搖를 겪게 되는 바, 그 動搖의 要因을 몇 가지 살펴보기로 한다.

靑少年期의 危險으로서의 正體感의 混亂은 社會的 正義感에서 일어날 수 있다. 靑年이 지난 正體感和 眞理觀이 眞僞上에 問題는 있지만, 靑年은 社會的 現象이 自己의 正體感和 眞理觀에 어긋난다고 믿으면, 강한 黑白論理의 傾向性으로 인해 反抗·拒否함으로써 社會的 不適應을 일으키는 境遇가 非-非再하다. 이런 境遇의 指導는 眞理는 絶對的이 아니라 狀況에 따라서 變換

25) 鄭寅錫, 前掲書, pp. 358~360.

26) 鄭元植外, 「現代教育心理學」, 全訂版, 서울, 教育出版社, 1984, p. 119.

수도 있으며, 價値는 善과 惡만으로 區別되는 것이 아니라 善이란 最善으로부터 次善·三善도 있을 수 있다는 選擇性的인 것이란 것을 濾得시킴이 바람직하다.

性役割 混亂이 많은 靑少年들에게 問題를 惹起시킨다. 最近에 이르기까지는 社會에서의 男女性에 適切한 行動과 性格에 대한 混亂은 거의 없었다. 性別特徵을 發達시키는데에 分명한 行動規範을 마련해 주었다. 그러나 急激한 現代社會의 特性속에서는 固定的인 性觀念에도 一大 變貌를 하게 되어, 性差別에 대한 反對現象은 性役割의 模糊性和 單一性(unisex)을 主張하게 되었다. 이러한 傾向은 傳統的인 男子特性을 發達시키지 못하게 하는 바, 各個人이 性別에 알맞는 行動과 役割이 무엇인가를 決定하여 正體感을 確立하도록 돕는 指導가 必要하다.

職業選擇에서도 正體感의 混亂이 일어난다. 現代社會는 知識과 技術이 急速度로 增加·發達함으로써 職業의 專門性は 날로 높아지고, 職業의 種類도 多種多様하다. 따라서 靑年은 職業을 選擇하여 適應하기가 漸次 어렵게 된다. Erikson도 職業選擇이 어려운 理由를 技術에 대한 信念과 一括作業(assembly line)의 效率性和 巨大한 會社組織에 의한 個性의 抑壓을 들고 있다. 이 외에도 高度技術産業社會에서 職業을 얻기 위해서는 相當期間의 教育和 訓練이 必要하며, 職業市場의 急激한 變化·바람직한 職業을 얻기 위한 熾烈한 競爭 등을 들 수 있다.

職業을 選擇해야 할 時期에 이른 靑年들은 많은 職業들이 個人的 正體感에 危脅을 加하고, 職業市場이 急激히 動搖한다는 現實에 直面해서 確實한 職業選擇을 통해 役割昏迷를 免해보려고 하면서도 危壓感을 느끼고 活動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런 理由로 해서, Erikson은 靑年들에게는 心理的인 猶豫(psychological moratorium)가 바람직하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心理的인 猶豫란 決心을 延期하는 期間이다. 特히 靑年期에는 人本主義的인 價値觀이 강한 만큼 人間性 抹殺現象에 대하여 매우 否定的인 일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猶豫를 시키는 것이 도움이 된다. 어떤 境遇에는 役割昏迷를 克服할 수 없는 젊은이들은 否定的인 正體感을 選擇함으로써 內的인 葛藤을 解決하려고도 한다. 正體感의 喪失은 家族이나 共同社會의 바람직한 役割에 대해 輕蔑的이고 敵對感으로 充滿되지만, 이런 젊은이도 보다 豊富한 自己省察을 얻기에 充分히 긴 時間을 갖게 된다면, 그 經驗은 肯定的인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問題靑少年은 언제나 非靑少年으로 烙印을 찍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면, 學生들이 肯定的인 正體感을 達成하도록 助長하기 위한 指導方法은 무엇인가. 그것은 上述했던 세 가지 具體的인 正體感의 意味를 살리는 것이다.

첫째 身體的인 安定感을 느끼게 한다. 靑少年期는 自身の 容貌과 身體的인 魅力에 대하여 神經을 쓴다. 그리고 他人과 比較하여 身體的인 條件에 缺陷과 否足함이 있다고 여기면, 甚한 不滿과 劣等感을 느낀다. 따라서 有名한 歌手·탤런트들도 扮裝士의 化粧技法에 의해 創造된다는 事實에 注意를 喚起시킬 必要가 있고, 世界의 偉人中에는 身體的인 缺陷을 補償(compensation)²⁷⁾한 者가 많다는 등, 身體的인 容貌가 人生을 決定하는 全部가 아님을 理解시킬 必要가 있다.

27) Herbert A. Carroll. *Mental Hygiene: The Dynamics of Adjustment*. 5th ed.. New York. Prentice-Hall. Inc., 1969, pp.54~56.

張大雲外, 「現代教育心理」, 서울, 正民社, 1985, p.247.

둘째 自己가 가야할 곳이 어디이며, 現在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도록 하라. 즉 人生의 目標과 그 目標을 위한 方法으로서의 現在의 狀況을 理解하도록 돕는 일이 重要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學生들로 하여금 職業的 可能性을 探索하도록 하는 것이다. 萬一 學生이 確固한 長期的인 職業選擇을 할 수 없다면 短期的인 目標, 例컨대, 高等學校를 卒業하는 것, 大學에 入學하는 것 등 猶豫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職業의 選擇은 人生에 있어서 다른 어떤 決定보다도 가장 賢明하고 智慧로운 決定을 要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職業的인 成功의 要因인 個人的 適性이나 興味 外에 身體的 條件·家族의 期待·職業에 대한 價値意識·誠實 및 努力등에 대한 綜合的인 判斷은 深思熟考를 要할 뿐만 아니라, 專門的인 助言指導를 要하는 重大事로 登場하고 있다.²⁸⁾ 現場見學과 實習 및 地域社會 資源 人士 招請講演 등도 有益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相對的인 適性は 勿論, 아직 期待하지 못했던 可能性을 開發해 내는 經驗을 發見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尊敬하고 價値있다고 믿는 사람으로부터 自己가 豫想한 認定을 받았다고 內的으로 確認하게 되도록 도우라. 萬一 學生이 教師를 尊敬한다면 그 教師는 學生을 個人的으로 認定하거나 成就에 대한 稱讚을 함으로써, 學生들이 肯定的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비록 學生들의 行動과 생각이 容納될 수 없다 할지라도 一但 “그럴 수도 있지”라고 受容하면, 그것은 學生들이 教師로부터 認定을 받았다는 內的 確信을 갖도록 해 주는 한 方法이 될 것이다. 믿으면 무엇이든지 다르기 되기 때문에, 잘못된 行動의 指導는 그 以後에 하는 것이 좋다.

V. 結 論

지금까지 Erikson의 漸成說(epigenetic principle)을 통해서 人生周기의 各 段階에서의 心理社會的 發達特徵을 概觀해 왔다.

여기에서 Erikson의 理論은 Freud의 그것과는 달리 自我(ego)의 發達과 機能에 큰 關心을 기울이고, 어떤 心理學的 現象이라도 生物學的·行動的·經驗的·社會的 要因의 相互作用으로 強調하고 있음을 看破할 수 있다. 또 一聯의 年令的 段階에 따라 人生이 끊임없이 進行되고 새로운 成長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成長은 人生段階에서 생기는 現在의 諸條件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그 以前의 發達에 의해서도 強하게 規制됨을 알 수 있다. 이런 脈絡에서 볼 때 青年期의 中核課題로 登場하게 되는 自我正體感의 確立은 幼兒期에서부터 始作된 것이며, 아울러 老年期에 이르기까지 그 影響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다만, 青年期를 통해 그것이 가장 重點的으로 나타나고 意味를 가질 따름인 것이다.

이 理論이 提示하는 새로운 觀點²⁹⁾으로서는 첫째 Erikson은 性格發達과 性格組織에 있어서 社會的 役割과 個人的 役割이 同等하게 重要하다는 理論을 公式化했다는 點. 따라서 이 觀點은 相

28) 鄭元植·朴性洙, 「카운슬링의 原理」, 서울, 敎學圖書株式會社, 1978, pp. 17~18.

29) 李勳求, 前揭書, p. 167.

談專門家が 成人問題를 初期兒童期の 挫折의 殘餘效果로써 보기 보다, 純粹한 成人의 性格危機를 解決하는 데 失敗한 것으로 볼 수 있게 했다. 둘째 Freud가 無視한 青年期에 關心을 가졌으며, 이 時期가 個人의 心理的·社會的 安寧形成에 中樞의 役割을 한다는 點, 셋째 各 心理社會的 成熟段階는 強하거나 弱하게 될 潛在性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各 段階의 失敗가 後 段階에 必然的으로 支障을 주지는 않는다는 樂觀的 見解를 強調했다는 點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理論에도 問題點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曖昧模糊한 概念들이 많고, 段階設定에 있어서 科學的인 根據가 없다는 點에서 批判을 받고 있다. 또 今後의 研究課題⁴⁰⁾로 青年期の 延長으로 인해 前·後半段階로 區分하여 그 心理社會的 成長에 焦點을 맞추어야 한다는 點과 青年期の 成長패턴이 다른 男性과 女性의 正體感에 대한 反應 또는 確立도 달리 보아야 할 것이란 點 및 各 段階의 順序性과 相互 依存性에 대한 假定的 有效性 등이 提起되고 있는 實情이다.

그러나 이러한 限界點과 課題에도 不拘하고 Erikson의 心理社會的 發達理論은 人生의 全 發達過程을 통해서 社會的 要因들이 人間發達에 미치는 影響, 즉 社會的 關聯속에서 特定 課題의 成敗與否가 人生의 幸不幸과 密接 不可分の 關係를 맺고 있다는 點에 視角을 照明했다는 點은 그의 秀越하고도 銳敏한 觀察과 洞察力의 所産이라 아니할 수 없고, 特히 그 中에서도 發達의 可塑性(plasticity)이 豊富한 兒童·青年期에 社會關係의 調節을 통해서 兒童·學生들의 健全한 成長發達을 꾀할 수 있는 教育實踐的 示唆는 자못 教育的 意味가 深長하다고 여기지 않을 수 없다.

30) 朴雅晴, 前揭書, pp. 94~95.

Summary

Educational Implication of Erikson's Personality Development Theory

Ko Myoung-kyou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be the educational guiding plan useful to labor for the desirable development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through controlling the social relationship affecting the personality development suggested by Erikson.

The followings are the educational guiding plan as each stage:

- 1) The period of preschool
 - (1) It will have to let children experience and play as freely as possible, to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their autonomy.
 - (2) It will have to give them opportunities to explore and experiment, and stimulate their initiative by answering properly their questions.
- 2) The period of primary school
 - (1) When the children do their works hard, their parents should be patient and praise them and internalize their sense of industry.
 - (2) The children should not be compared with or cope with their classmates not to make them have the feeling of inadequacy and of inferiority.
 - (3) Teachers should give educational consideration to the children to experience the feeling of success and delight, through their achievements which are to be shared among the children as their various social roles.
- 3) The period of secondary school
 - (1) Teachers should make the young students understand that physical appearance is not the only precondition that determines the life, and let them have the physical security.
 - (2) Teachers should make the young students seek for the occupational possibilities, in order to see which they should choose.
 - (3) Teachers should acknowledge the students personally and praise their achievement, in order to make them have their inner self-esteem.